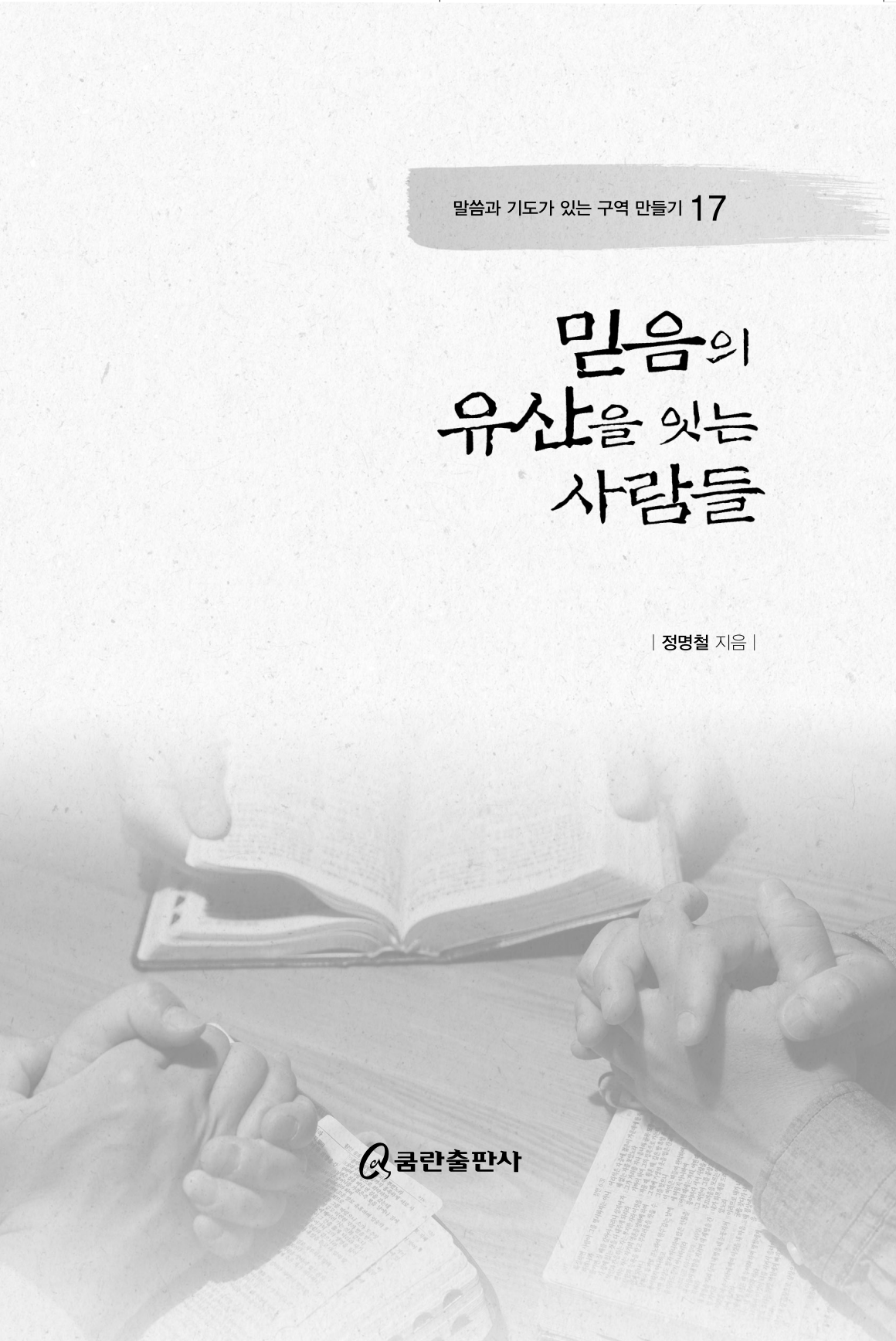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구역 만들기 17

믿음의 유산

을 잇는
사람들

| 정명철 지음 |



 **쿰란출판사**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백 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부어졌기에 오늘까지 이룰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백 주년을 맞이하며 백 주년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도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고난, 6.25전쟁 시기에 겪었던 아픔들, IMF라는 경제적 위기,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지나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고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 부흥하는 교회의 비전을 한국 교회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새 시대 새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멈추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저 된 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주년을 맞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계획으로 새로운 백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멈추었던 예배의 회복과 함께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더 가까이하고 더 사랑하며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출판을 도와주신 콤팩출판사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정명철 목사



| 머리말 | ... 2

1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수 1:9)	9
2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눅 10:36-37)	19
3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는가 (삼상 17:45)	27
4	나와 함께 즐기자 (눅 15:7)	36
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 11:6)	45
6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54
7	본향을 찾는 사람들 (히 11:16)	64
8	물과 성령으로 (요 3:5)	73
9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눅 4:8)	81
10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 9:3)	91
11	열두 제자 파송사 (눅 9:1-2)	100



12	가장 확실한 약속 (마 19:29)	110
13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눅 23:22)	119
14	믿지 않는 세상 (막 16:14)	126
15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롬 10:14-15)	135
16	과실을 맺는 가지 (요 15:5)	143
17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신 8:3)	153
18	마땅히 행할 길 (잠 22:6)	163
19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엡 6:1-3)	172
20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엡 5:22, 25)	181
21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마 7:13-14)	190
22	은혜를 입은 자 (창 6:8)	200

23	인자가 온 것은 (마 20:26-28)	209
24	깨끗하게 하옵소서 (요 13:1)	218
25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 43:5)	225
26	잘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시 127:1)	234
27	심령이 가난한 자 (마 5:3)	242
28	애통하는 자 (마 5:4)	251
29	온유한 자 (마 5:5)	260
30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 5:6)	269
31	긍휼히 여기는 자 (마 5:7)	278
32	마음이 청결한 자 (마 5:8)	286
33	화평하게 하는 자 (마 5:9)	295
34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마 5:10)	303



35	회개와 세례와 성령세례 (행 19:5-6)	312
36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6)	319
37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8)	325
38	겸손히 섬기라 (빌 2:3)	334
39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시 115:12-13)	342
40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막 11:14)	351
41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 (마 19:14)	360
42	깨어 있으라 (마 25:13)	369
43	하나님께 영광을 (마 5:13)	378
44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 2:11)	387
45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후 6:2)	396



나는 민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 ✧ **본 문:** 여호수아 1장 9절(구 320쪽)
- ✧ **찬 송:** 545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통 344장)
- ✧ **요 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실패한 일이 있었든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든지 상관 없습니다.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항아리나 가죽 부대에 넣어 보관하는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 팽창하여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러나 오래된 가죽 부대는 딱딱해져서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고 신축성이 없어 그만 터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도 포도주도 다 못 쓰게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첫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자’,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봉사하자’ 하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였을 줄 압니다.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1년 동안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주제로 삼고 살아갈 표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 출신입니다. 노예들과 비교할 때 배운 것도 많고 군사와 정치와 경제에 두루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왕 파라오와 대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기도하여 바닷물을 연 사람입니다.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 하실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할 때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불이 그들을 쫓아 모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대적하려 할 때에 미리암의 정수리로부터 하얗게 나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고 배신을 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한 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재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이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각 지파의 대표 열둘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열 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나았다, 괜히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노하여 옷을 찢으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올라가서 정복하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귀하게 키워주십니다. 그들은 장차 가나안 땅의 두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지식도 믿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는 40년을 후퇴했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가 되었다고 보셨을 때 모세를 데려가시고 대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두렵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앞에는 요단 강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우키라서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은 또 웅성거리고 불평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단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은 9절의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준비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담대히 외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앞장서 싸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믿음으로 회막을 40일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보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약속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실수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바로 앞 7-8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율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십시오. 율 한해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것을 명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듣자마자 백성들을 모으고 즉시 백성들에

게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선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선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백성들도 16-18절에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수 16:18).

백성들도 바뀐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넘실대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돌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움도 안 해본 노예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만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90세가 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을 매일 돌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른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거민들이 성문을 닫고 나오지 못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 명령대로 말도 안 되는 여리고 성을 도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도 성경에 자연의 현상을 거스르는 기브온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수 10:14)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업으로 삼는 가정은 영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을 주시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야로 묵상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긍정으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요단강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도림교회 성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말씀의 주제 파악하기:


.....
.....

㉡ 오늘 말씀 중 은혜받은 부분 나누기:

.....
.....

㉢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
.....

 함께 드리는 기도제목

1.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